

**2014. 10. 29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공정경제팀 권혁부 팀장 [02-731-2430] 구윤모 연구원 [02-731-2432]

**국민경제자문회의 -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경제와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농어촌벤처 육성방안 」  
세미나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소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10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와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농어촌벤처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농어촌 벤처의 현황 및 육성방안, 미래 성장 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제 1세션 “농어업 벤처 현황 및 정책 제언”**을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김주미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정부의 ‘6차 산업화 정책’의 활성화 및 선진국의 농업 선진화 정책으로 농어업 벤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업 벤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어업 벤처 기업의 경우, 저수익률의 어려움으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판로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농어업 벤처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농어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의 접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농어업 벤처 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과 가장 관련성이 큰 NT(바이오 기술), ET(환경 기술) 등의 산업에 대해 중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 2세션**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김동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이 발표하였다.

김동환 위원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화 하는 것은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참여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는 ICT 등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은 물론 기존 농업의 영역확대 등 창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는 성장기회의 발굴 뿐 아니라 정책 추진 체계도 기존 정부주도형 하향식에서 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 위원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미래성장 기회의 발굴과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의 두 가지로 분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회 발굴 측면**에서는 농업분야 미래 성장산업 발굴, 기업과 농업 간 협력을 통한 성장기회 발굴, 글로벌 성장 기회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 위원은 농업분야 10대 성장산업으로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축산, 무병과수, 한국형 종돈, 농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치유농업, 농업용 로봇, 친환경 농자재, 축산 바이오가스, 맞춤형 식품, 새로운 원료이용 사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글로벌 성장기회 발굴에서는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와 더불어 동북아 식량 허브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정책 추진 측면**에서는 미래 성장산업 육성체계 확립, R&D 체계 개편, 창조적인 농업경영체 육성, 농정추진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내에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총괄할 T/F의 구성이 필요하고 현재의 중앙정보 위주의 하향식 농정이 농업인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육성은 창조적인 전업농과 소농을 위한 마을 경영

체를 육성화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며, R&D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난립되어 있는 R&D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 3세션**은 ‘농업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신지식농업인 중 한명인 안동마을 부용농산 영농조합 유화성 대표가 발표하였다.

유 대표는 판매하는 상품에 이름을 부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회사의 이미지까지 같이 그려줌으로써 소비자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며 광고나 방송 등을 추가적으로 연계시켜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농업을 단순 생산만이 아닌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해나가는 통합적인 형태로 변화해나가면서 문화적 요소, 이야기적 요소를 심어주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단순 농사에서 기업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생산과 품질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품개발 등을 통해 상품과 판매채널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융·복합 산업으로 구성하여 그 안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성장에는 지속적인 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관리부장은** 농어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어업벤처의 지속적인 창업과 도전이 계속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농업성장을 위한 몇 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소비자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론티어 기술을 찾아야 한다고 하였고

둘째, 지식기반 경제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그 자체가 기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밸류체인을 강조하였는데 밸류체인 과정에서 산업간 협력이나 기술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찾아야 하고,

넷째, 농어업은 자연재해 등의 외부위험뿐만 아니라 내부적 전문성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벤처기업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업자와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고 자본이 농업성장과 미래산업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옴니시스템(주) 대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품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품질과 서비스에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시키고 상품성을 높인 확장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농업과 경영의 결합은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농업인 스스로도 농업환경이 시장경제라는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입농산물의 확대를 두려워하고 외면하기 보다는 극복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도 우수한 경영능력을 가진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를 발굴하여 차별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농업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네트워크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서윤정 농어촌벤처포럼 공동의장**은 농촌은 농업인만의 입장이 아닌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가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 섹터가 태동할 수 있는 터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농촌 가치개발의 핵심은 농촌기업가정신이며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농어촌벤처기업을 이해해야 하며, 기업가정신을 통한 선도적 사례가 농업인에 파급되고 활동이 연계됨으로서 농촌지역도 활성화되는 모델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제언하였다.

서 의장은 농어촌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였던 개별 경영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새로운 귀농 귀촌인,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청년층 등 신규 인력의 농촌 진입 기반이 될 수 있는 복합 정주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방적인 수혜적 관계의 도농교류에서 벗어나 도농산업 교류 확대를 통한 사전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종석 전남대학교 교수는 농업 분야에서 미래산업화 및 벤처육성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단기로 나누어 농업 부문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과학기술은 최고 수준이지만 현장에 접목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새로운 기술접목이 농업인들의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 분야 미래성장을 위한 사업선정에 있어 그 기준을 수출주도형으로 할 것인지 국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농업간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만 대기업이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농촌과의 협력의지를 표현하거나 단순 시혜적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